

마음의 깨달음과 정치 참여의 화쟁: 원효와 맑스

이도흠

1. 세계의 빈곳이 사라졌다

지금 우리 앞의 세계에 빈곳이 사라졌다. 빈곳이 사라졌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무위(無爲)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워둠[虛]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 300톤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강에 200톤의 오폐수를 버린다면, 100톤의 비워둠이 있기에 그 강은 흐르면서 이온작용을 하고 미생물과 식물이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바람에 항상 맑게 흐르고 늘 1급수 물고기가 노닌다. 하지만, 300톤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강은 시커멓게 썩기 시작한다. 전 화번호도 번호 하나를 비워두기에 거의 무한대의 조합이 가능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비워둠이 있는 한, 어떤 오류가 일어나고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자연(自然)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제 생김 대로 다른 것들과 무한히 서로 조건이 되고 연관을 맺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나고 자라고 사라진다. 하지만, 비워둠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질서에서 벗어나 혼돈에 빠진다.

2008년은 인류문명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넘어선 해이기 때문이다. UNDESA(국제연합 경제 및 사회문제 분과)가 2008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도시 인구는 2008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촌

인구를 넘어섰으며 2025년엔 45억 8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31억 1천 만 명이 늘어 현재 인구와 맞먹는 64억 명이 도시에 살 것이다.¹⁾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인구가 그렇지 않은 인구를 넘어섰으니,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쓰레기가 쌓일 것이고 빈틈은 사라질 것이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2007년 연례보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경우 3-4℃만 기온이 상승해도 2080년까지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3억 3천만 명이 홍수를 피해 이주해야 하고, 2억 2천만 명에서 4억 명이 말라리아에 걸릴 것이라고 지적한다.²⁾ 국제자연보존연맹(ICUN)은 2008년 10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전세계 과학자 1,700명이 참가하여 조사한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6,928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3,246종은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에, 4,770종은 위험상태, 8,912종은 멸종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³⁾

2006년 금융자본주의가 정점에 도달하자 소득분배 상태도 1929년으로 되돌아갔다. 미국 상위 1%의 소득은 29년 당시와 같은 약 23%였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미국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에 비해 2조 달러 증가했으며 상위 10%의 소득은 3.5달러 증가했다.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을 이들이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 강도에 비례하여 관찰되는 경향이다. 세계 부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재 세계 부유가계 0.7%가 전세계 부의 1/3을 소유하고 있다.⁴⁾

지금 우리는 빈틈이 사라진 극단의 세계에 살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혁명적인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22세기는 도래하지 않

- 1) UNDESA, *World Urbanization Prospects—The 2007 Revision*, 2008, p. 3.
- 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7, pp. 9-10.
- 3) www.icun.org/about/work/programmes/species/red_list/index.cfm?NewsID=1695
- 4)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진보평론』 42호, 2009년 겨울, 259쪽.

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성찰과 대안을 원효와 맑스의 종합을 통해서 모색해보자.

2.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진보는 없다

패러다임이란 세계의 분열과 부조리에 맞서서 다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인간의 집단무의식적 대응양식의 체계이자 자기 앞의 세계를 해석하고 표상하고 실천하는 내적 구조다. 물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토대가 바뀐다는 생각은 상부구조가 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처럼 비과학적 인식이다. 새로운 토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토대가 먼저 새로운 것으로 변하였는데 낡은 패러다임이 존속한다면, 양자는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처럼, 결국 그 모순 투쟁 속에서 새로운 토대가 낡은 패러다임을 밀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낡은 패러다임이 토대의 발전을 방해한다. 지금은 바로 그 시기다.

유럽의 변방이자 가난한 나라였던 핀란드가 노키아의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IT산업과 교육개혁으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강소국이 되었다. 번스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rch)는 애플(Apple)사가 App Store의 다운로드 수익만으로 매 분기 6천만에서 1억천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추산했다.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팔로워는 40만 명에 달하는데, 그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소설을 홍보할 수 있다. 루더핀사라는 광고대행사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비쩍 마른 백인 남자가 더워서 상반신을 벗고 우연히도 철조망을 배경으로 자세를 취한 사진에 “죽음의 수용소, 강제 수용소” 등의 제목을 달아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켰다. 그러자 유태인 대학살에 원죄의식을 갖고 있던 전 미국과 유럽이 세르비아를 나치와 동일시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세르비아 전역을 초토화한다.⁵⁾ 몇몇 미국

■ 5) 다카기 도루, 『전쟁 광고대행사—정보 조작과 보스니아 분쟁』, 정대형 옮김, 수희재, 2003.

시민이 국방성에 출근하여 모니터를 보고 게임을 하듯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 라크에서 이륙한 무인항공기가 총과 미사일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지상기지를 폭파한다. 우리는 시장과 국가를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진다. 많은 이들이 'Second Life.com'에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대사관과 해외지점을 개설한 국가와 기업도 여럿이다. 테크놀로지와 생산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인 생산력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계인 생산관계가 산업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자.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사적인가, 공동적인가? 공장과 기업은 엄연히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싸이월드와 트위터는 사적인 부분은 미약하고 공동적인 부분이 대다수다. 둘째, 각자 활동의 상호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여 잉여노동을 착취하고 있는가?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일하는 나는 분명히 잉여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 인터넷에 올린 하이퍼텍스트와 카페 레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잉여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생산(수단)의 분배형태는 개인인가, 집단인가? 지배-종속관계인가, 상호협력 관계인가? 이 나라의 대다수 생산수단은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고 지배-종속관계이지만, 인터넷에 올린 리눅스와 카페 레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집단이 공유하며, 거기에 지배-종속관계는 없다.

분명 지배적 생산양식은 자본제다. 주요 모순은 자본의 잉여 노동착취, 계급 갈등, 노동과 인간의 소외다. 그럼에도 산업사회와 다른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생산력, 생산관계가 달라졌다면, 주어진 사회발전 단계에서 사회의 경제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생산관계의 총체로서 토대는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새로운 토대는 낡은 패러다임과 모순 관계를 빚고 있다. 그럼 이에 부합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홍수라는 모순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서양의 이분법 패러다임에서 가능한 대안은 댐을 쌓는 것이다.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적 사유에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계층질서’가 존재한다.”⁶⁾ 이 패러다임에서는 세계를 인간과 자연 둘로 나누고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어 자연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서양은 댐을 쌓듯 인간 주체가 자연을 타자화하여 이를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을 문명이라 하였고, 이것으로 그들은 17세기 이후 전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을 썩게 하고 결국 거기에 갇혀 사는 수많은 생물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원효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생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변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⁷⁾

서양의 이분법이 댐을 쌓아 물과 생명을 죽이는 원리를 이룬다면, 화쟁의 불일불이(不二)는 그 댐을 부수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며 물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은 물을 흐르게 하는 원리이다. 실제로 최치원은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독을 쌓은 것이 아니라 상림(上林)을 조성하였다. 씨가 자기를 소멸시켜

■ 6) Jacques Derrida, *Positions*, tr.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56-57.

■ 7) 元曉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敎全書』, 625-중-하.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자신을 썩혀 씨를 남기듯, 나무는 자신을 공한 것으로 여겨 물을 풀어주고 물은 자신을 소멸시켜 나무의 양분이 되었다. 이로 위천은 1천여 년 이상 홍수를 막으면서도 늘 맑을 수 있었다.⁸⁾ 가정이지만, 이런 패러다임으로 현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면 상림처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화쟁의 불일불이는 존재를 과정과 생성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세계를 서로 깊은 관련을 맺는 하나의 시스템, 곧 부분과 전체가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인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유사하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지구상의 온 생명체를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심층 생태론과 통한다. 하지만, 화쟁의 불일불이의 전제는 공이다. 공이 생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점이 이들 철학과 다르다. 화쟁의 불일불이는 서양의 생태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불일불이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운동, 생태적 생산과 소비 등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실현이 가능한 현실태이자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다.

3. 맑스와 원효가 만날 수 있는 조건

불교와 맑시즘은 인간해방이 이루어진 '계급 차별 없는 이상사회'라는 '같은 꿈, 즉 동몽(同夢)을 꾸었고 지금도 꾸고 있다. 불교와 맑시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꿈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실현 조건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와 맑시즘은 마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뒤바뀐 조합, 즉 동몽이상(同夢異床)의 관계에 놓여 있다.⁹⁾

■ 8) 지금까지 불일불이의 생태론에 대해서는 이도흠, 「원효의 화쟁사상과 생태이론의 비교연구」(『돈암어문』 제14집, 돈암어문학회, 2001년 10월)를 요약함. 상세한 논증은 이를 참고 바람.
 ■ 9) 유승무, 「불교와 맑시즘의 동몽이상(同夢異床)」, 『불교평론』 40권, 2009. 9, 121쪽.

불교와 맑시즘은 무신론적 입장, 세계를 변화 내지 무상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실천지향적 태도,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태도, 인간 해방 및 이상사회의 추구, 이타적이고 대자적 실천지향, 기존 체제와 텍스트에 대한 해체적 입장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다.¹⁰⁾ 그럼에도 차이는 분명하다. 붓다에게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인간해방의 장애물이었고, 맑스에게는 노동이나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물신화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인간해방의 장애물이었다. 그러기에 불교는 수행자에 의한 인정투쟁을 통해서 이상사회에 도달하려고 한 반면 맑시즘은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의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¹¹⁾

M- C- M

① ②

①과 ②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 하지만, 양자 모두 제대로 작동하여 자본주의체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중은 화폐-상품에서는 노동거부로, 상품-화폐 단계에서는 소비거부로 맞설 수 있지만, 공포는 노동거부를 회피하게 하고, 유혹은 소비를 조장시키는 기제다.¹²⁾ 강내희 교수가 잘 간파한 대로, ①에서 노동을 거부해야 노동자가 화폐를 받고 잉여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국가와 자본의 공포에 주눅이 들고 그를 극복하고 저항의 연대와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폭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10) 앞의 세 가지는 트레버 링이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나님』(민족사, 1993)의 162-65쪽에서 지적한 것이고, '인간 해방 및 이상 사회의 추구'는 유승무가 「불교와 맑시즘의 동몽이상」에서 밝힌 것이고, 이타적이고 대자적인 실천과 해체적 입장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 11) 유승무, 앞의 글, 124-26쪽.

■ 12) 강내희, 「신자유주의 위기 시대 코뮌운동의 주체형성」, 『문화/과학』 60호, 2009년 겨울, 69쪽.

자본과 국가 연합체의 폭력은 부당한 것이고 불법이지만, 항상 그것은 노동자의 연대와 실천을 넘어선다. 노동자가 각목을 들고 덤비면 최후탄과 최후액을 뿌리고 진압봉을 휘두르며, 노동자가 화염병을 던지면 물대포로 맞는다. 노동자가 총을 들면 그들은 대포와 헬기와 탱크와 인공위성을 동원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 모두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가와 자본의 연합체를 전복할 만한 노동자 세력의 폭력 혁명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남미식의 개량적 진보는 가능한가. 뒤집어 말하여, 왜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10%대에서 머무는가.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분단모순이 계급모순과 마주치면서 대중은 레드컴플렉스를 내면화하고 국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상황에서 '진보=빨갱이'로 쉽게 매도되면서 정당성이나 국민을 자발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상실하였다. 다음으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 메커니즘, 일제 식민지 잔재에 미국식 교육이 혼합된 보수적인 교육체제, 지역주의에 종속된 선거 시스템 등이 진보적 담론 생산을 막고 보수적 담론의 확대재생산을 주도하였다. 셋째, 90년대 증권붐과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상당수 노동자가 '자본가형 노동자(capitalist worker), 혹은 '중산층적 프롤레타리아(bourgeois proletariat)로 전환, '하얀 탈을 쓴 흑인'처럼 구체적 현실은 노동자이지만, 정치경제적 성향은 자본가나 중산층이 되어버렸다. 넷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부르주아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게임, 대중가요 등 노동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가 탈계급적이고 탈정치적인 것 일색이어서 민노총 소속 노동자처럼 계급의식과 주체가 확고한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노동자가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¹³⁾ 다섯째, 양극화의 심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양극화로 사회구성은 가운데가 볼록한 열기구형 사회에서 가운데가 거의 사라진 모래시계형

■ 13) 이도흠, 「신자유주의의 내면화와 저항의 연대, 그리고 눈부처공동체」, 『미래와 희망』 4호, 2010년 가을, 74-75쪽.

사회로 이전하였다. 여기에 복지책은 거의 사라지고 사회적 안전망은 해체되었다. 상위의 기득권만 제하고는 모두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사회우리와 도덕, 공동체의 미덕은 차츰 사라지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그들은 주변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동료들이 퇴출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조직보다 기업 경쟁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고용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일시하게 된다. 노조는 노동운동에 의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통해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능력주의와 경쟁제일주의를 시나브로 수용하게 된다. 특히, 이는 구조조정을 겪은 사업장이나 개인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¹⁴⁾ 더불어, 조돈문 교수의 지적대로, 노동계급 내 계급의식이 높은 부분이 위축되며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 보수화되는 점, 노동자의 물적 조건이 향상되며 계급관계의 적대적 성격에 둔감하게 되는 점, 노동자들이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계급의식이 발달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¹⁵⁾

그럼, ②에서 소비의 거부를 조직해낼 수 없을까. 이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의 부패와 부조리, 3대 세습체제, 야만적인 노동자 탄압을 접한 외국의 시민운동가들은 왜 한국 대중이 삼성불매운동을 전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과연 한국 대중이 모두 과잉소비에 매몰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 대중의 물적 욕망은 고조되었다. 자본가는 절대 다수가 프로테스탄트식의 기업 윤리는 거의 없는 천민 자본가들이었다. 천민 자본은 국가 및 언론과 유착관계를 맺고 국가의 보호 아래 노동자를 최대한으로 착취하고 언론과 더불어 국민의 소비를 최대한으로 조장하였다. 60년대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된 물질 위주의 산업화는 국민을 물신의 노예로 만들었고, 80년대의 증권붐과 투기붐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을 투기문화화하였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IMF와 신자유주의다. IMF 위기를

■ 14) 같은 글, 65-66쪽.

■ 15) 조돈문,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경제와 사회』 제72호, 11-41쪽.

계기로 한국 대중은 세 방향에서 물질 욕망을 극대화하게 된다. 자본제 사회에서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폭력적이다.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윤리다. IMF 이전에는 동네에 골목문화가 남아 있었고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공동체적인 관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미국식 해고를 주도하면서 공동체적 관계는 일시에 무너져버렸다. 이후 타자와 공동체의 시선을 의식하여 억제하던 욕망이 분출하게 된다. IMF 위기의 극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은 수많은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실업자와 낙오자로 만들었다. 이로 많은 국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 축적을 해야 한다는 극단의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800여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사색과 성찰이 없이 매일 생계를 걱정하며 그날 벌어서 그날 소비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하였다. 디지털 문화 또한 이를 조장하였다.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로 이전하면서 대중들은 현실이 아니라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에 현혹되어 과잉소비를 한다.

①에서 모든 노동자가 조직화된 주체가 되어 자본과 맞서서 노동거부를 실천하거나, ②에서 대중들이 욕망의 자발적 절제를 통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한다면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 ①과 ②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한다. ①에 가장 유용한 사상이 맑스라면, ②에 가장 유용한 사상이 불교다.

4. 갈등과 대립 · 폭력의 해소와 눈부처의 정치학

사회엔 필연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대립을 무조건 척결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니면 당위적으로 화해를 요구하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관계, 자원과 물질 이익, 신앙과 사상,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이 갈등과 대립을 낳지만 근본 요인은 동일성의 패러다임 때문이다.

난징대학살 때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불 속에 던져버린 일본 군인들이

악마의 화신이였을까? 아니다. 그들도 소설을 읽고 영영 물어버리고 첫사랑에 온 밤을 설렘으로 지새우고 키우던 강아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다만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남이야. 저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해"라는 식의 배제의 담론이 그들을 그렇게 악마로 바꾸어버렸던 것이다.

이 예처럼, 동일성이 형성되는 순간 세계는 동일성의 영토로 들어온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동일성은 '차이'를 포섭하여 이를 없애거나 없는 것처럼 꾸민다. 동일성은 다른 민족이든, 반대자든, 병든 자든, 동일성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을 '타자'로 간주하고, 이를 자신과 구분시키면서 '배제'하고 이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한다. 물론, 자원, 이데올로기, 시장, 종족 및 국가 사이의 갈등 등의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20세기에 자행된 전쟁과 대학살의 근저에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배제와 폭력'의 담론이 내재한다. 반면에 원효는 변동어이(辨同於異)의 차이론을 전개한다.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다. 하지만 그것은 같음을 나누어 다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을 녹여 없애고 같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같음은 다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같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름은 같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다르다고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같다고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다.¹⁶⁾

원효의 말대로 동일성이란 것은 타자성에서 동일성을 갖는 것을 분별한 것이요, 타자성이란 것은 동일성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동일성은 타자를 파괴하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동일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타자성은

■ 16) 元曉, 앞의 책, 626-上

동일성을 해체하여 이룬 것이 아니기에 이를 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主)와 객(客), 현상과 본질은 세계의 다른 두 측면이 아니라 본래 하나이며 차이와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 주체에는 이미 타자가 들어와 있고 타자엔 주체가 스며있다. 화쟁은 주와 객, 주체와 타자를 대립시키지도 분별시키지도 않는다. 양자를 융합하되 하나로 만들지도 않는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도 아니다. 주와 객,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비취주어 서로를 드러내므로 스스로의 본질은 없고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차이를 갖기에 진리다.

변동어이의 논리를 차이의 구조로 함유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이 '눈부처'다. 똑바로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 비취진 내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이를 '눈부처'라 한다. 그 형상이 부처의 모습과 닮은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이는 내 모습 속에 숨어있는 부처, 곧 타자와 자연, 나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면서 그들과 공존하려는 마음이 상대방의 눈동자를 거울로 삼아 비추어진 것이다. 그 눈부처를 바라보는 순간 상대방과 나의 구분이 사라진다.

진속불이(眞俗不二)와 결합한 변동어이의 차이(difference), 곧 역동적이고 생성하는 눈부처의 상생(相生)은 이성과 의식으로 형성하는 개념적이고 당위적인 상생과 다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독일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자살한 누이를 둔 어떤 한국인 사업가가 있다고 치자. 그는 독일인 의사를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은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형제와 자식처럼 대하였다. 이주노동자들도 그를 형이나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야말로 아버지가 그토록 증오하는 독일인 의사입니다"라고 외쳤다. 아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그것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는 자신에게서 독일인 의사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며칠 뒤 탄자니아 노동자와 가족 소풍을 가서 그에게서 누이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는 탄자니아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머느리로 받아들였고, 아들과 탄자니아 여성 또한 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추체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였다.

이처럼 눈부처의 상생은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하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감성에 의해 차이를 긍정하고 몸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섞이면서 생성된다. 들뢰즈(G. Deleuze)가 '개념적 차이'와 달리 '차이 그 자체'를 내세우고 이는 동일성에 절대 포섭되지 않고 감성에 의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하다.¹⁷⁾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눈부처를 발견하고자 내가 타자가 되는 것이 눈부처의 차이이자 상생이다. 이 사유로 바라보면,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무너지며 그 사이에 내재하는 권력과 갈등,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서서히 힘을 상실한다. 그 타자가 자신의 원수든, 이민족이든, 이 교도든 그를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사유다.

갈등과 대립, 폭력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는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만남: 화해와 상생은 타인과 '만남'에서 시작한다. 레비나스(E. Levinas)의 표현대로 인간이란 만날 때마다 이 만남 자체를 상대방에게 늘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다.¹⁸⁾ 서로를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부처로 만들 수 있는 이로 여기며 만남을 갖는다.

② 대화: 만남은 감성의 소통과 대화를 부른다. 우리는 타인을 만나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을 느낀다. 타인이 웃고 있으면 내 얼굴의 근육도 긴장을

■ 17) '차이 자체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차이로 감성과 초월적 경험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사실 반성적 개념 안에서 매개하고 매개되는 차이는 지극히 당연하게 개념의 동일성, 술어들의 대립, 판단의 유비, 지각의 유사성에 복종한다. 차이는 과국을 언명하는 상태로까지 진전되어서만 반성적이기를 멈출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실제의 개념을 되찾는다'(Gille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tr.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34-35).

■ 18) E. Levinas, *On Thinking-of-the-Oth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 7.

풀고 미소 짓는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답한다. 타인의 향기에 매혹되어 그를 몸 깊숙이 끌어들이 내 몸의 일부를 만든다. 또 악수와 포옹을 하며 서로 따스한 온기를 주고받는다. 이어 입을 열어 말을 한다. 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긍정과 부정, 질문과 답이 이어지면서 차츰 우리는 자기 세계 안에 타인의 세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몸 안에 타인을 담는다.

대화는 변증법적이며, 대대적(對待的)인 동시에 화쟁적이다. 대화란 코드와 세계관이 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 사이의 소통이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생활하던 이들이 마주쳐 다른 세계와 사람을 느끼고 이해하고 서로 다른 코드를 맞추려 노력하며 그 세계와 타인을 자기 안에 담기 위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③ 공정한 중재와 변증법적 종합: 내가 전혀 다른 세계와 몸을 가진 타인과 만났을 때,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지양을 통해 종합을 이룬다. 공정한 중재와 변증법적 종합을 이루려면 먼저 진실이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모두의 권력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중재를 맡은 사람이나 기관은 단순히 중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갈등에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권력이 똑같이 작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권력이 비대칭이면 대화도 비대칭이며,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강제로 귀결된다. 다른 것이 있더라도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하면서 서로 같은 것에 맞추어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

④ 일심이문(一心二門)의 화쟁: 당위적인 화쟁이 아니라 생멸문(生滅門)에서는 둘로 갈라진 현상을 조사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고, 모든 결정은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하되 결정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 여기서 화쟁으로 가는 데 방해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합의를 통해 내쳐야 하며, 제도라면 제도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변증법적 종합으로 다룰 수 없

는 사항은 종합될 수 없는 차이로 간주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차이의 정신, 인내심, 같은 것에 맞추어 다름을 포용하는 회통(會通)의 태도다.

⑤ 양자의 대화가 더 높은 차원에 이르면, 자신의 세계를 말하려 하기보다 타인의 세계를 알려 하고, 또 닮으려 한다. 대대(對待)란 기다리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 비운 곳에 타인을 채우는 것이다. 나를 주장하고 같음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름을 포용하면서 차츰 그와 닮아가는 과정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면, 고등어를 먹지 못하던 이가 사랑하는 이가 먹는다니 먹어보고 이주노동자를 혐오하던 이가 사랑하던 이가 그런다니 포용한다. 그러니, 오랜 동안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먹는 것에서 시작하여 입는 것은 물론, 얼굴마저 비슷해진다. 그러기에 진정한 대화란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소통을 통해 완전한 하나가 되는 동시에 하나이면서도 너와 내가 각각의 주체로 존재하는 경지다.

그렇다면 본래 이기적인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인간이 당위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인을 만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상생을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업(karma), 원효의 삼공(三空)을 통한 화쟁에서 찾는다.

⑤-① 업의 받아들임: 시간이 업과 얽히면서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가 된다. 짧고 직선적인 시간관만으로 보면, 착한 자가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손해 보는 부조리로 만연한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길고 둥그런 시간관으로 보면,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죄업을 씻는 과정이다. 곧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며,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 선업을 쌓는 과정이요, 다시 이 선업이 원인이 되어 나의 후생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인도에 가면 거지가 당당하게 구걸을 한다. 구걸이 상대방의 죄업을 씻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업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윤회가 신화든 아니든,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고 타자와 상생하여 선업을 쌓으려 한다.

⑤-② 아공(我空): 아공은 '자기애', '자기의 버림', '자기의 거듭남'의 3단계를 거친다. 오온(五蘊)의 가합(假合)으로 허상이지만 연기적 관계 속에서 가유(假有)로서 내가 생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지극히 아름다운 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재산과 집과 바꾸자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응하겠지만, 설사 그 산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교의 불살생(不殺生)과 동체대비(同體大悲)는 자기애(自己愛)와 연기적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내 목숨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이 소중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고, 타인의 고통과 절망을 나의 고통과 절망처럼 아프게 공감할 때 동체대비의 자비심이 일어난다.

다음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나는 오온의 가합으로 본래 허상이다. 나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며 무수한 연관관계와 조건 속에서 관계하고 생성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니, 자기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생각,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자신의 행복과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나는 타인과 상생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이란 것 자체가 타인의 욕망을 빼앗음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버림은 연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각 존재자는 우리의 범주에 들어온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거나 포기한다.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나를 온전히 버릴 때, 그 비움 속에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것이다. 버려야 비워지고 비워줘야 채워지니, 버림과 비움과 섬김은 하나다.

⑤-③ 법공(法空): 갈등이 이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법공은 모든 이데올로기나 편견뿐만이 아니라 교리와 진리 자체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어떤 성스러운 교리나 진리도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 종교 이름으로 빛이진 술한 학살과 전쟁에서 보듯, 이를 해체하지 못하고 추종할 때 다른 종교나 진리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스스로는 도그마에 빠진다. 교조는 지성의 무덤이다. 이데올로기나 교리, 진리 자체를 부숴버리고 사람 그 자체가 만나 사건을

그 자체로 놓고 여여(如如)하게 인식하고 대화할 때 갈등은 진정으로 해소된다.

⑥ 공공(空空)의 상생: 공공, 혹은 눈부처의 상생은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가 대화를 하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감성에 의해 차이를 긍정하고 몸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섞이면서 생성된다.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 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부처를 발견하고서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의 해결책은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개의 경우 권력이 대칭일 때나 공정한 중재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본과 노동, 국가와 시민은 권력이 비대칭이다. 때문에 국가와 자본, 시민이 동등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민중은 자각하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연대하여 저항해야 한다.

5. 마음의 깨달음과 정치 개혁의 회통(會通)

이건희가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고 삼성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길이 있을까? 그가 맑스의 『자본론』과 범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로 감동을 하여 전혀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된다면, 국가와 임원진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여 삼성을 해체할 수도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는 성공신화만을 써왔지만, 대중들이 삼성의 야만과 부조리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여 거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3세의 방만한 경영이 실패하고 백화점식 생산이 한계에 이르러 삼성의 해체가 구체화한다면, 이건희는 자구책으로서 삼성을 시민기업으로 바꿀 수도 있다. 셋째, 이건희의 권력을 주식 소유 지분만큼으로 한정하고 노동자와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를 끊고 자본과 국가보다 시민과 노동자가 더 상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경제 시스템을 개혁한다면, 삼성은 더 이상 재벌로 군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구조와 시스템도 창조와 생산의 동력을 잃고 개인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에서 보듯, 개인의 깨달음과 상황에 대한 연기적이고 과학적인 성찰, 시스템 및 사회구조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는 주지하듯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말한다. 무명(無明)만 없애면 본각(本覺)이 드러난다. 경험을 통해서든, 정신적 자각을 하든, 아니면 양자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든, 무명을 소멸시키는 계기만 마련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안으로부터 생긴다. 마치 임계치 이상의 물리적 충격을 받은 물질이 배열구조가 바뀌어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깨달음이란 원래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신과 몸 안에 간직된 온갖 경험과 기억과 의식을 잘나적으로 재배열하여 자신의 존재를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하고 이 존재가 새로운 지평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면 궁극적 진리에 다가가는 것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경지다.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두 사람이 제3자로부터 실은 두 사람이 이복형제라는 소리를 들으면 싸움을 중지하고 포용할 것이다. 이처럼 연기는 각 존재자를 우리의 범주에 속하게 한다. 이때 우리는 각 존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독립투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에서 보듯, 각 존재자는 우리의 범주에 들어온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거나 포기한다. 이처럼 연기에 대한 대승적 깨달음은 '욕망의 자발적 절제를 낳으면서 개인의 깨달음에서 사회적 윤리로 확대된다. 마음의 깨달음은 자신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몸을 매개로 서로 조건이 되고 관련을 맺는 타자들과 연결되면서 정치와 윤리로 확장한다.

연기적 존재로서 깨달음을 한 차원 더 높게 승화한 것이 원효의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이다.

“평등한 상(相)이 또한 공(空)하다”란 곧 진제(眞諦)를 융합하여 속제(俗諦)로 삼은 “공공(空空)”의 의미이니, 순금을 녹여 장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차별상(差別相) 또한 공(空)하다”라 한 것은 이 속제를 다시 융합하여 진제로 삼은 것이니, 이것은 장엄구를 녹여 다시 순금으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다. …또 처음의 문(門)에서 “속제를 버려서 나타난 진제”와 제2의 공(空) 가운데 ‘속제를 융합하여 나타난 진제’인 이 2문의 진제는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며, 진제의 오직 한 가지로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융합하여 나타난 진제는 오직 하나이다.¹⁹⁾

금덩이를 녹여 금반지로 만들고 금반지를 녹이면 다시 금덩이로 돌아간다. 금반지에도 이미 금의 본성이 담겨 있다. 진제와 속제, 부처와 중생도 마찬가지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늘처럼 청정하고 도리에 더러움이 없기에 중생은 경계를 지어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본래 청정한 하늘에 티끌이 끼어 더러운 것처럼 무명에 휩싸여 경계를 지어 세계를 바라보니, 이 경계는 허망한 것이다. 이 모두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만일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곧 다른 경계가 없어지고 중생 또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간다. 유리창만 닦으면 하늘이 다시 청정함을 드러내듯, 무명만 없애면 본래 청정한 중생 속의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圓成實性], 부처와 중생,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중생이 곧 부처다.

그리하여 저 아름다운 연꽃이 높은 언덕에 피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부처가 되었어도 열반의 성에 머무르지 않으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세간의 중생을 구제한 뒤에 열반을 얻는다. 깨달음이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세계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여 온갖 경험과 기억과 의식을 찰나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이지 ‘참나(眞我)’를 찾아 존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 19) 元曉, 앞의 책, 639-下~640-上.

가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를 위하여 그리로 가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바로 자비행이다. 타자를 구원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속에 숨어있는 불성을 드러내며, 이 순간 나 또한 부처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그리로 가 그를 완성시키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완성하는 행위다. 원효는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부주열반(不住涅槃)을 추구하였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자 누더기 옷을 입고 박을 두드리며 중생 속으로 내려갔다.

맑스는 『공산주의 선언』에서 적극적 자유는 사회적 개인들의 자기발전이므로 각 개인이 타자를 더 많이 향상시켜 줄수록 그들 각자의 발전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²⁰라고 선언한다. 맑스가 볼 때 개인은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개인(individuals in social relation)이다. 개인이 자신과 타자와 관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할 때 주체가 된다. 주체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from freedom)뿐만 아니라 자기 앞의 장애와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면서 적극적 자유(to freedom)를 쟁취한다. 더 나아가 주체는 타자와 자신이 사회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타자의 자유를 더 확대하려는 대자적 자유(for freedom)를 구현한다.

맑스가 추구한 이상사회는 개인이 사회 관계성과 주체성을 함께 인식하고서 정의, 곧 타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사회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이를 좀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려고 서로 갖은 실천을 다하는 사회를 꿈꾸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이 모두가 모여 함께 할 일을 정하고 일하는 자들이 땅과 공장을 공유한다. 이곳에서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이 아니다. 가치를 생산하고 자기 앞의 장애와 소외를 극복하여 자신의 본성을 구현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방편이자, 세계를 자신의 목적대로 변형하

■ 20)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 37쪽.

는 실천이다. 더 나아가 나의 노동을 통하여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이타적(利他的)인 동시에 대자적(對自的)이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각자의 능력을 따름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름으로"라는 그가 제시한 원칙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따라 존재의의를 가지며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한다. 타인을 자유롭게 하여 나는 더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워진 나로 인하여 타인은 더욱 자유롭게 된다. 이 순간 자유는 나 아닌 타자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실천으로서 정의와 부합한다. 정의 또한 자유를 전적으로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 자신의 자유로서 진정한 자기실현을 달성한 개인은 상호관계성으로서 정의가 실현되고 적극적인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에 각 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인정되는 공동체를 요청한다.²¹⁾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나 국가 외부가 아니라 그 안에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진지이자 그를 대체할 체제인 대안의 코뮌을 만들어야 한다. 공포에 맞서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제국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에서 타자를 상정하고 그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한 것을 지양하려면, 대중은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눈부처-주체는 원효의 화쟁이론에 바탕을 한 것이다. 눈부처-주체는 타자와 무한한 연관 속에서 차이와 가유(假有)로서 주체를 형성하는 자다. 그는 주체로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함은 물론, 부조리한 세계에 저항하여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 또한 구현한다. 하지만, 눈부처-주체는 이에 머물지 않고 동일성의 사유를 뛰어넘어 내 안의 타자, 타자 안의 내 모습을 동시에 보는 자이면서 타자 속에서 불성(佛性)을 발견하여 그를 부처로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부처가 되려는 자다. 타자의 고통스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기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타자를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하면서 진정한 자기를 완성

■ 21) Carol C. Gould, *Marx's Social Ontology-Individuality and Community in Marx's Theory of Social Reali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p. 178.

한다. 자기소외와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의 혁명과 사회 혁명을 종합한다. 이 순간에 느끼는 희열이 바로 대자적 자유이자 아우름의 '신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중들이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와 지배층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우중으로 머문다는 점이다. 모두가 눈부처-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부단한 자기해체와 이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든 눈부처-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 절충적인 제3의 길을 넘어선 대안은 화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여전제(閭田制), 렉토르스키의 빼레스트로이카를 결합한 눈부처 공동체다.

눈부처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눈부처주체로서 실존하고 실천한다. 눈부처 공동체는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한다. 모든 생산수단과 도구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이 공동체의 50%는 필요에 따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며, 나머지 25%는 개인의 능력별로 인센티브를 주어 개인의 창의력을 발현할 동기를 부여하며, 25%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대자적 자유를 구체화한다.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노동, 장애를 극복하는 자기실현으로서 노동, 철저히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인 노동을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도시의 공동체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촌공동체와 연합관계를 형성한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와 연결시키고 민중을 자각시키고 조직하여 신자유주의를 내파하는 진지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 곳곳에 코뮌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사회구성체로 구성한다.²²⁾

구성원간 노동의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분할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시장과 자본제의 외부에서 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따로 마을화폐를 만들어 사용한다. 단 마을화폐는 7일마다 10%의 가치가 감소되고 7주 후에

■ 22) 지금까지 눈부처와 눈부처 공동체에 관한 기술은 이도흠, 「신자유주의의 내면화와 저항의 연대, 그리고 눈부처공동체」, 77-78쪽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는 0원의 가치를 갖게 하여, 교환과 유통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외적으로는 불일 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내적으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원리에 따라 구성원간 상호주체성과 상보성을 높이는 것이다.²³⁾

학교는 따로 대안의 학교를 만들며, 지성, 야성, 감성, 연대를 함양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되,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한다.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 각자가 동등한 능력과 재능의 소유자란 관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한다. 책읽고, 사색하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담고 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감성을 기른다. 우리 전통의 놀이와 예술 가운데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이고 민중적인 것을 부활하여 활성화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도 똑같이 존중하여 수용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약자와 함께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의 연대와 정의로운 실천을 몸에 스미게 한다. 필요에 따른 노동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 노는 데 할애한다. 구성원은 욕망의 자발적 절제를 통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청규를 둔다. 모든 사람의 가치와 권력은 사회적 지위, 젠더, 나이, 재력에 관계없이 1 대 1로 동등하다. 가족 단위의 사생활은 보장하고 간섭도 하지 않되, 이를 벗어난 마을의 정책과 실현, 청규의 제정과 집행, 제정의 운영 등의 문제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여 집담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이렇게 운영하되, 확고하게 정의관을 확립하고 깨달음에 이른 자라도 언제든 탐진치에 물들고, 이기심과 욕망에 기울어질 수 있기에 깨달음이 곧 집착이라는 명제 아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고 참회한다.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하다. 길은 험하고 어둡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가장

■ 23) 이도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불교와 서양의 대화를 통하여, 『불교평론』, 2009년 가을호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눈부처-주체가 되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눈부처-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꾸다. 그 눈부처공동체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는 웅대한 꿈을 꾸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아직은, 좀 더 밤이 깊어지겠지만 곧 동살이 희분하리라.

한양대